

# 한국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백 기 홍\*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을 인간 심성이 표현된 자료로서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살피면서 인간 심성의 이해에 한층 더 다가가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을 기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 활동이 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의식성을 이루게 될 심적 요소들이 무의식에서 어떻게 준비되며 어떻게 의식으로 통합되어 가는지, 나아가, 그 과정의 진행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무꾼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두 배 많은 나뭇짐을 마련해 오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새로 구해온 짐은 하룻밤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 이에 나무꾼은 의문을 품고 짐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지를 추적하려 하고, 그러다 뜻하지 않게 하늘 여행을 하게 되며, 마침내, 그간 짐을 거두어 간 계 하늘이라는 것, 그 이유는 그에게 허락된 복 분량이 한 짐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울러, 태어나지 않은 어떤 이의 큰 복을 확인하고는, 그 복을, 장차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빌려오게 된다. 이후의 이야기는, 나무꾼이 일련의 새로운 계기들을 만나면서 부농이 되는 과정, 마침내 복 주인이 등장하여 약속된 때에 복을 돌려주는 사건을 거쳐, 최종적인

접수일 : 2023년 3월 30일 / 심사완료 : 2023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6월 18일

\*울산기독병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Kihong Baek, M.D., Ulsan Christian Hospital, 34-49 Nam-myeongni 1-gil, Dudong-myeon, Ulju-gun, Ulsan 44914, Korea

Tel: +82-52-263-5111, E-mail: artpass100@naver.com

대반전의 창조적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전체 서사는, 복 주인에게 복이 온전히 이양된 후에 열리게 될 새로운 삶의 지평, 즉, 진화된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목적하고 진행되는 일련의 심적 사건으로 이해될 만했다. 여기서 주인공 나무꾼은, 변화가 필요한 낡은 의식으로, 동시에,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준비하며 장차 거기에 참여하게 될 심적 요소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주인공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변화들은, 새롭게 등장할 의식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점층적·구체적 예고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주인공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간다. 그러나 그런 그도, 복을 이양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자, 갈등과 고민이 깊어진다. 이는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과정의 어려움을 잘 시사해 준다. 특기할 것은, 이야기 속의 모든 심적 사건이 이 마지막 지점에 수렴되고 있었다는 점, 아울러,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주인공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간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민담은, 새로운 의식성의 도래에는 그것에 참여하며 경험을 하게 될 이의 몫이 있음을, 그리고 이 몫은 그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해 온 정신 심층의 중심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임을, 잘 시사해 주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체험 주체가 그 최종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만약 체험 주체가 이에 반해 중간 단계의 어느 성과에 집착하며 머무르고자 한다면, 무의식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또 다른 험난한 과정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이는, 한 개인에서든 사회에서든,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과 삶이 요청되는 곳에서라면 늘 적용되는 것임을, 본 민담은 아울러 시사해 주고 있었다.

**중심 단어 :** 민담; 하늘; 빌려온 복; 의식성; 새로운 차원.

## 들어가는 말

민담처럼 오랜 세월 반복해 회자 되어 온 이야기라면, 거기에는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담겨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이야기가 생성된 바탕에,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커다

란 보편적인 마음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 개인을 아우르며 우리 모두의 삶과 문화에 영향력을 드리우고 있을 커다란 마음의 차원에 다가갈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정신 현상에 대한 충실한 관찰을 시도해 온 분석심리학은, 풍부한 체험 자료들을 토대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마음의 영역이 있음을, 아울러, 이 영역이 인류의 모든 경험이 침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나아가 미래의 경험 조건을 또한 이루는 근본 바탕임을 밝혀 왔다. 각 개인의 의식 세계 및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도 근본적으로 이 바탕에 뿌리를 두고 성립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은 이 정신의 영역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명명하면서, 여기에는 정신의 원형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중심에 모든 원형의 활동을 총괄하는 정신 활동 즉 ‘자기 원형’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민담은 이러한 원형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투사·반영되어 있는 보고(寶庫)이다. 민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형적인 마음 요소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실, 누군가가 어떤 민담을 대한다고 할 때, 그는 이미, 그 민담의 모티브에 의해 자극될 수 있는 원형적인 마음 요소들을 자신의 무의식 안에 간직하고서 그 민담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때, 그의 무의식 안의 이러한 요소들이 활성화되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드리우게 된다면, 그때부터 민담 속의 인물이나 모티브들은 생생한 정감을 일으키며 삶에 개입하는 상(像)이 되며,<sup>1)</sup> 민담의 이야기는 자신과 관계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된다. 비유하자면, 고요하던 휴화산이 활화산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신 심층의 개입이 요청되는 특별한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 안의 원형적인 심적 요소가 자극될 수 있는 민담을 만나는 것이 무척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민담을 통해 자신 속 원형

1) 이유경은 우리가 민담을 읽을 때 감정이입이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동일시가 되는 중심 인물상이 있게 된다고, 그 중심 인물상을 우리는 자아로 상정할 수 있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와 관계를 맺는 내면의 다양한 심상들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유경 (2006): “민담<손 없는 색시>를 통한 여성 심리의 이해”, 《심성연구》, 21(1),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p46.

의 작용을 생생히 경험하게 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힘과 통찰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인 삶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무리 해도 활력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단든지, 혼란스러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실은 이때야말로 무의식의 개입이 요청되는, 그리고 이에 반응하여 무의식에서 원형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sup>2)</sup> 한계에 다다른 의식에게 진정한 해결과 구원의 실마리는 늘, ‘의식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정신의 큰 근원’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된다는 것, 그렇기에 의식이 건강하게 원형 체험을 해내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많은 분석 사례들이 방증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할 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 역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반영해주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신비하고도 특별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의 삶과 관련해 우리의 무의식이 벌이는 심적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껏 널리 회자 되어 온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에, 즉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작업을 통해, 우리의 깊은 마음의 차원이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 보고자 한다.

## 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 소개

### 1. 민담의 내용<sup>3)</sup>

옛날 한 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예쁜 각시와 결혼해서 오

2) “원형의 작용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개체나 집단의 정신 상황에서 그것이 요청될 때 무의식속에 배정(配定, constellate)되며 어떤 형태로든 의식에 나타나 체험된다.”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제3판, 일조각, 서울, p123.

3) 신동훈(역음) (2003): 《세계민담전집 한국편》, 황금가지, 서울, pp28-36.

순도순 재미있게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흠이었다. 날마다 힘들게 나무를 해서 한 짐씩 장에 내다 팔았지만, 그걸로는 하루 세 끼를 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차복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해 보자. 이제부터 하루에 나무를 두 짐씩 해야지”

이튿날부터 차복이는 아직 닭도 울기 전 캄캄한 꼭두새벽에 집을 나서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 어두워질 때까지 쉴새 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무 두 짐을 채울 수 있었다.

차복이가 나무 두 짐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자 아내는 깜짝 놀랐다.

“어머, 여보! 나무를 어떻게 두 짐씩이나 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두고 보라고.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밥걱정은 말아야지!”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차복이는 색시가 해 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나뭇짐을 장에 내다 팔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간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여보, 마당에 둔 나무 한 짐이 어디로 갔지?”

“예? 저는 나무를 만지지 않았는데요?”

이상한 일이었다. 근처 어디에서도 사라진 나무 한 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밤중에 누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차복이는 할 수 없이 남은 한 짐을 장에 내다 팔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다. 그날도 역시 나무를 두 짐을 해서 마당에 부려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 마당에 나온 차복이는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말았다. 나무 한 짐이 다시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번에도 사방을 찾아 보았지만 나뭇짐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밤에 도둑이 드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차복이는 결심을 하고 색시에게 말했다.

“무슨 조화인지 내가 꼭 알아내야겠어. 내가 나뭇짐 속에 들어왔을 테니 짐을 묶어주오.”

차복이는 만류하는 색시의 말을 뿌리치고 출입문 쪽에 놓인 나뭇짐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동정을 살피고, 도둑이면 붙잡을 참이었다.

달이 떠서 높이 올랐다가 지려고 할 무렵이었다. 차복이가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철커덕!”하면서 무언가가 나뭇짐을 붙잡는 소리가 났다. 차복이는 퍼뜩 잠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다.

“웁거니! 드디어 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했다. 나뭇짐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연기가 오르듯이 하늘로 훨훨 날아오른다. 차복이의 등에는 그만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그렇게 얼마를 갔는지 모른다. 나뭇짐이 잠깐 멈추는 듯하더니 누군가의 말 소리가 들렸다. 위엄이 가득 서린 목소리였다.

“저기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고는 묻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오늘도 나무 두 짐을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쫓쫓, 어리석은 인간들! 제 복을 모르고 그리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제 며칠 못 갈 것입니다, 마마.”

“마마”라는 소리에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여기가 궁궐? 지금껏 하늘로 올라왔으니, 그렇다면 저이는 옥황상제가 아닌가! 그래, 호랑이 굴에 물러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어!’

신하가 짐을 막 풀려 하자, 차복이는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가서 옥황상제 앞에 넋죽 엎드렸다.

“마마, 통촉하소서.”

그러자 짐을 풀던 신하는 물론이려니와 옥황상제도 어찌나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잊지 못했다.

“넌, 넌 누구란 말이냐.”

“소인, 이 나뭇짐의 주인인 줄로 아뢰입니다. 한번 잘살아 보려고 죽을힘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이렇게 나뭇짐을 가져가시니 어인 일이란 말입니까. 하루 세 끼도 먹기도 힘든 고된 인생입니다. 부디 통촉해 주소서.”

그제서야 어찌 된 일인지를 깨달은 옥황상제가 차복이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이니 난들 어찌겠느냐?”

“그게 저의 복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르쳐 주지.”

하면서 차복이를 이끌고 뒤뜰에 있는 창고로 갔다.

창고에 들어가니 천장에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어떤 주머니는 어른 머리통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해서 그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써어 있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복주머니다. 여기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돼 있는 법이지.”

차복이가 한참 만에 자기 복주머니를 찾고 보니 거기 걸린 수많은 주머니 가운데서도 형편없이 작아서 안에 든 것이 없었다. 차복이는 그만 힘이 쭉 빠졌다. 보잘것없는 주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울상이 된 차복이가 유난히 큰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건 누구 것이기에 저렇게 복이 많단 말입니까?”

“그건 석승의 것이야. 복을 아주 대차게 타고났지. 머잖아 세상에 태어날 게다.”

그 때 차복이가 옥황상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다.

“상제님, 제발 소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석승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니 저 복을 좀 빌려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석승의 복을 빌려 쓰게 해 주세요.”

뜻밖의 청을 들은 옥황상제가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거참,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긴 하구나. 한동안 빌려주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라. 내 그리하마.”

“고맙습니다, 상제님.”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을 석승이한테 돌려줘야 해. 석승이 일곱 살 되는 해를 넘기면 안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복이는 옥황상제로부터 석승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다.

차복이 동아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보니 그새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남편이 도둑놈한테 목숨 일을 당한 줄 알고서 울고 있던 색시는 남편을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잘살게 됐어.”

“이렇게 몸 성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 날, 차복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잠깐 땀을 식히는데 주변에 벌어진 밤송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 이걸 주워다가 색시 줘야겠다.’

차복이가 막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챙겨 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차복이를 불렀다.

“이봐 젊은이, 내가 밤을 좀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 이 부싷들을 줘세.”

차복이는 밤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노인이 하는 말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밤을 주고서 부싷들을 받았다. 하긴 밤보다 부싷들이 더 귀한 물건이긴 했다.

차복이가 부싷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웬 포수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말을 붙였다.

“보시오. 지금 저기 노루 두 마리가 있어서 그걸 잡아야 할 텐데 불이 없어서 총을 놓지 못하니 그 부싷들을 나한테 주구려. 내가 노루를 잡으면 한 마리 드리리다.”

차복이가 부싷들을 내주자,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서는 뿡뿡 쏘더니 노루 두 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를 주었다.

‘이게 웬 횡재람!’

차복이가 나무를 한 짐 해서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려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지나가다가 차복이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여보게 젊은이, 그 노루도 파는 건가? 그거 이 말하고 바꾸지 않겠는가?”

“예?”

“이 말이 영 몹쓸 말이란 말이야. 여물을 쥐도 안 먹고 등에 올라탈 수도 없고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말이지. 그렇다고 잡아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때, 안 바꿀 테지?”

“아이고, 말 한번 가져 보는 게 소원이었는걸요.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루를 주고 말을 끌어오니 말 한 필을 공짜로 얻은 셈이었다. 차복이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싱글벙글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이 오긴 오려나 봐!”

다음 날 아침, 차복이가 나무를 하러 나서려는데 누가 급히 주인을 찾았다. 차복이가 나가 보니 웬 낫선 한량이었다.

“보시오. 당신이 어제 장에서 노인한테 말을 산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값을 후히 쳐 드릴 테니 그 말을 나한테 파시오. 내 황소 한 마리와 금 열 냥을 드리리다.”

차복이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허우대만 멀쩡하지 쓸 데가 없는 말인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천하의 명마랍니다. 그간 주인을 못 만나서 그랬던 게지요. 내가 무과 시험을 보러 하는데 이 말이 꼭 필요하니 제발 나한테 파세요.”

차복이가 말을 내주고 금 열 냥에 황소까지 받으니 밀친을 잡아도 아주 크게 잡은 썸이었다.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새로 사니 생전에 처음 가져 보는 농토였다. 차복이가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하자 이듬해에 농토가 배로 늘고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두 배로 늘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차복이는 갑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새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니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머지않아 석승이한테 복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올텐데……’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복의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러 왔다. 살펴보니 그 아내가 아기를 가져 만삭의 몸인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차복이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난 음식으로 대접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뭘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던 그 다음 날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야단을 하기 시작했다. 애를 낳으려는 게 분명했다. 차복이가 산과를 불러서 돌보게 하니 거지 여인은 아기를 순산하였다. 고추 달린 사내아이였다. 차복이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 내면서 산모와 아이를 돌봐 주었다.

차복이가 무심코 거지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그 거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그냥 석승이라고 지으렵니다.”

그 말에 차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기가 빌린 복의 임자가 제말로 찾아 든 것이 아닌가. 이제 복을 누릴 날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아이가 일곱 살이 되기 전에 복을 돌려줘야 하니 말이다.

차복이가 거지에게 말했다.

“이것도 다 인연이니 다른 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내가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리지요.”

그러자 거지는 감지덕지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니 차복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났다.

그렇게 함께 오순도순 어울려 살다 보니 어느새 석승의 나이 일곱 살이 다가왔다. 차복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석승이네 식구를 불러놓고 지난 사연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다 저 아이 것을 빌린 것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우리 집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받으시구려.”

그러자 석승의 아버지는 그만 난감해졌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재산을 받겠습니까?”

“이 재산을 안 받으면 난 제명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받으셔야만 합니다.”

석승이 부모는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어,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석승이가 나섰다.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자신을 쳐다보는 어른들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신 저분들을 저의 수양부모로 모시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자 석승의 아버지가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탁쳤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차복이 또한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게 해서 석승이는 친부모와 수양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다. 타고

난 복이 얼마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와서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라고들 한다.

## 2. 유화(類話) 및 모티브 분석

헤어날 길 없는 가난에 있는 주인공이 복을 구하기 위해 신이(神異)한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인류에게 친숙한 주제인 셈이다. 아르네-톰슨 설화 유형 분류에는 이런 주제의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으며,<sup>4)</sup> 에베르하르트(Eberhard)의 『중국 설화의 유형』에 11개의 중국 설화가, 세키(關敬吾)의 『日本 昔話集成』에 7개의 일본 설화가 수록되어 있고, 조희웅은 한국에서 채록된 61개의 구복여행담을 정리했던 바 있다.<sup>5)</sup> 대개의 구복여행담들은 공통적으로, ‘행복의 결핍자→복을 구하기 위한 여행→난제 해결의 청탁→신에 의한 난제 해결→보상’<sup>6)</sup>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행복의 결핍자가, 뜻하지 않게 신이한 세계로 가게 된 후 그곳에서 자신의 박복(薄福)과 관련된 진실을 확인하고는 한시적으로 남의 복을 빌어오는 특이한 형태의 신이(神異) 여행담 또한 널리 발견된다. 이러한 차복(借福)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sup>7)</sup> 『한국구전설화』,<sup>8)</sup> 『전복민담』<sup>9)</sup> 등에 총 23편이 수집되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구복설화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 차복설화는 그렇지 않다.<sup>10)</sup> 중국 육조시대에 발간된 『수신기(搜神記)』

4) Arene A와 Thompson S은 460A · 460B · 461 · 461A의 네 유형 하에, ‘신이한 세계로의 구복 여행’의 요소를 갖는 수많은 채록 민담을 정리했다. 주로는 유럽에서 채록된 800여 편이며, 인도 · 중국 · 인도네시아 및 중 · 남미에서 수집된 민담도 정리했다.

조희웅 (1996): 《한국설화의 유형》 증보개정판, 일조각, 서울, pp168-172.

Thompson S (1964): *The Types of the Folktale*, 2nd rev. FFC No.284, Helsinki, pp156-158.

5) 조희웅 (1996): 《한국설화의 유형》 증보개정판, 일조각, 서울, p172-181.

6) 조희웅 (1996): 같은 책, pp172-181.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엮음)(1980-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8) 임석재 (1988 · 1966):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서울.

9) 최래옥 (1979): 《전복민담》, 형설출판사, 경기. p332-333.

10) 배도식은 구복설화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해 차복설화는 그렇지 않으며 선행 연구 또한 찾기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도식 (2009): “차복여행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아문논집》 제27집, p201.

에 차복설화와 유사한 장차자(張車子) 설화가 전하고 있으나<sup>11)</sup> 한국에서처럼 널리 발견되지는 않는 듯하다.

정재민은 한국의 차복 설화들을 아우를 수 있는 14개의 단락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 분석을 시도했던 바 있다.<sup>12)</sup>

- A.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팔아 가난하게 살았다. (서두/결핍)
- B.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나무를 팔고자 하였다. (노력)
- C. 밤사이에 나뭇짐이 사라지곤 하였다. (노력의 실패)
- D. 나무꾼은 나뭇짐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나뭇짐 속에 은신한다. (탐색)
- E. 한밤중에 옥황상제가 나뭇짐을 끌어올린다. (승천)
- F. 나무꾼은 옥황상제에게 나뭇짐을 끌어올린 이유를 묻는다. (질문)
- G.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복 분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답변/정보)
- H. 나무꾼은 옥황상제에게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원한다. (방도모색)
- J. 그 후 나무꾼은 매사가 순조로워 부자가 된다. (한시충족)
- K. 기한이 되자 나무꾼은 재산을 처분하여 은신한다. (갈등)
- L. 어느 날 주막에 유숙하다가 아들을 출산한 거지 내외를 구출한다. (시험)
  - L1. 주막에 유숙하던 중 출산한 거지 내외를 구출한다.
  - L2. 은신 도중 우연히 아들을 낳은 거지 내외를 구출한다.
- M. 나무꾼은 복 주인을 알아보고 후대한다. (양도/계약이행)

11)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난했으나 도를 좋아하는 주남책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주남책 부부가 밭일을 하다가 피곤하여 쉬려고 누웠다. 그러자 꿈에 천공(하느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는, 바깥의 관리에게 명하여 녹을 주도록 한다. 하지만 사명신이 장부를 살펴보고는, 이 사람의 관상은 가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도를 넘길 수 없으니 장차자의 돈을 빌려서 녹봉을 천만 주도록 하시라고, 차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걸 빌려주자고 하고, 천공이 좋다고 한다. 꿈에서 깨어난 부부는 꿈속에서의 일을 말하고 이후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여 천만 전을 얻게 된다. 한편, 장구라는 인물이 일찍이 주남책의 집에서 고공살이를 하였는데, 다른 남자와 야합해서 임신을 하고는 달이 차서 낳을 때가 된다. 주남책이 이를 알아채고는 밖으로 내보내며, 장구는 수레창고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주남책은 이를 불쌍히 여겨 죽을 썬어서 먹게 하고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묻는다. 그러자 장구가, 꿈에서 천공이 아이 이름을 차차라 했다고 말한다. 이에 주남책은 깨달은 바가 있어, “내가 예전에 꿈에 천공으로부터 장차자의 돈을 빌렸는데 장차자가 바로 이 아들일 것이니 재물을 마땅히 네게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후 장차자는 자라서 주남책보다 부유하였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문학/구비문학.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7455> (접근일자: 2023. 6. 8)

12) 정재민 (1997) : “차복설화의 구조와 복에 관한 인식”, <<구비문학연구>> 제4집, p185.

M1. 태어난 복 주인을 알아보고 후대한다.

M2.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대한다.

N. 나무꾼이 재산을 양도하여 가난해지거나, 공유하여 잘살게 된다.

(결말/충족)

N1. 나무꾼은 재산을 양도하고 다시 가난해진다.

N2. 나무꾼은 거지와 재산을 공유하면서 계속 복을 누린다.

배도식도 한국의 차복설화 15편의 구조를 각각 분석하고 있는데<sup>13)</sup> 그중 12편은, 앞서 정재민이 구성한 단락과 대체로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나머지 세 편 중 하나는, 하늘나라로의 여행이 아니라 죽어서 저승을 여행하고 염라대왕으로부터 복을 받아오는 변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 편은 어떤 가난한 집 부부가 자기 집 문 앞에 쓰러진 옥황상제의 막내아들을 구해 주고 나서 그 막내아들에 의해 차복 여행을 하게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sup>14)</sup> 나머지 한 편은, 내용이 많이 생략된 형태의 짧은 유화(類話)이지만<sup>15)</sup> 시작부의 결핍 상황, 신이한 곳으로의 여행, 차복, 원래의 복 주인에게 복을 반환하는 과제 등의 기본 요소들은 공유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심리학적 고찰을 위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구조를 정리해 보았다.

- ①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다. (결핍)
- ②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더 많이 해 오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늘 나뭇짐이 사라지고 없다. (결핍의 지속)
- ③ 나뭇짐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밤에 나뭇짐에 숨어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나뭇짐과 함께 하늘로 들리어진다. (신이한 곳으로의 여행)
- ④ 자신에게 허락된 복이 나뭇짐 한 짐 밖에 안 됨을 깨닫는다. (원인을 깨달음)
- ⑤ 옥황상제를 졸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의 큰 복을 빌린다. 단 진짜 주인

13) 배도식은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수록 7편, 《한국구비문학대계》수록 4 편, 최래옥의 《전북민담》수록 1편, 서정오의 《우리이야기 백가지》수록 1편, 홍태한의 《한국의 민담》수록 1편, 총 15편을 소개하며 구조를 분석했다.

배도식 (2009), “차복여행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27집, pp201-218.

14) 배도식 (2009), 같은 논문, p218.

15) 배도식 (2009), 같은 논문, p223-225.

이 일정 나이가 되면 그에게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차복)

- ⑥ 주인공이 빌린 복으로 노력을 하여 큰 부자가 되어 잘살게 된다. (결핍의 제거)
- ⑦ 등장할 복 주인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복 주인이 걸인 또는 떠돌이 층에서 탄생한다. (복 주인의 등장 및 근본적 과제의 대두)
- ⑧ 가난한 복 주인의 식구들을 집 안으로 들여 함께 산다. 복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차츰 다가온다. (근본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정의 진행)
- ⑨ 마침내 때가 되어 모든 사실을 복 주인에게 알리고 복을 돌려주려 한다. (격변)
- ⑩ 복 주인을 수양아들로 들이게 되며, 모두가 다 함께 오래오래 잘 산다. (반전 및 해소)

이 유사 구조 속에서 이야기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 이야기 시작 부분에 나무꾼과 함께 사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금슬 좋은 나무꾼 부부로 이야기가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꾼 아들과 엄마로 시작하기도 한다. 드물지만, 혼자 사는 나무꾼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하늘에서 짐을 거둬갈 때도, 갈고리를 걸어 동아줄로 거둬가다가 하면, 회오리바람이 거둬가기도 한다. 복 주인의 이름도, 석송, 복동, 돌바우, 마철, 차복, 수레, 쉬 등 다양하며, 태어나는 처지도, 걸인 아들, 뜨내기 장사치의 아들, 남사당패 등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가난한 소외계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체로 각 유화(類話)의 결론은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해피엔딩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결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사면에서 박순호가 채집한 설화<sup>16)</sup>에서 주인공은 복 주인의 가족을 맞이해 들이기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복을 빌린 진실을 알리지 않으며 재산 일부만을 복 주인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많은 재산은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이후 주인공의 아들들은 계속 가난해져 근근이 살게 되고, 복 주인은 재산이 계속 불어나 큰 부자가 된다. 결국 주인공은 죽기 전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복 주인에게 자기 아들들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16) 상사면 응령리에서 채록. 정금선 구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역음) (1980-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6집 4책, pp575-583.

주인공이 하늘에서 빌려온 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누려가는 과정은 각 유회들에서 대체로 간략하게 처리되어있다. 그저 그 복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며 잘살게 되었다는 짤막한 설명 정도이다. 약간의 추가 묘사가 있는 일부 유회에서는, 장사를 했다는가, 쌀장사·명태장사를 했다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박순호가 채집한 이야기 등,<sup>17)</sup> 하늘의 복을 빌려온 주인공이 그 복을 세상에서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누려가는 과정이 상세한 교환 누적담 형식으로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밤송이들을 습득하며, 그것이 교환과정을 통해 더 큰 값어치의 물건으로 바뀌어 간다. 이 흐름은 ‘밤→부싯돌→노루(혹은 꿩)→말→소와 엽전 열 냥’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최종적으로 소와 농지를 얻어, 열심히 농사를 지음으로써 큰 부자가 된다.

신동훈은 채록된 여러 차복 설화들을 종합, 한 편의 이야기로 정리해 놓았다.<sup>18)</sup> 본 소고에서는, 신동훈이 정리한 이야기를 택해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이는 여러 유회에 담겨있는 이야기 요소들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충실히 살펴보고자 함이다.

## 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가난한 나무꾼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무를 더 열심히 해 음

이야기는 옛날 어느 곳에<sup>19)</sup>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다는 데서 시작된다. 산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역음) (1980-1989): 같은 책, pp575-583.

18) 신동훈은, 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채록·보고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각편을 견주어 살펴면서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민담들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음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상상력의 개입을 최대한 절제하려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

신동훈(역음) (2011): 《세계민담전집 한국편》, pp409-410.

19) 민담이 흔히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김지연은, ‘옛날에’라는 단어가 민담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어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현재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된다고, 이때 사람들이 합리성은 잠시 내려놓고 말이 안 되는 영뚱한 이야기가 전개되어도 용납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 ‘옛날 옛적’을 ‘태초의 그때(Illud tempus)’ 즉, ‘시간과 무시간 사이의 좁은 틈, 세속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적 순간’으로 해석한 폰 프람츠의 언급을 소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지연 (2017): “민담 <외쪽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2(2), p134.

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나무꾼이라면,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연과 접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연 속의 자원을 문명에 전달하는 인물상이라 할 수 있다. 대상 민담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한 반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도 나무꾼과 같은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집단적 의식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무의식의 차원을 접하면서 무의식의 자원을 의식으로 매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활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꾼이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과연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무꾼은 자연의 소산을 매일 힘들게 채취해서 장에 내다 판다. 하지만 돌아오는 보상이 미미하다. 마침내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든 일을 두 배로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나무꾼이 가져온 자원이 문명에 그리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나무꾼에 의한 자연과 문명 간의 소통 방식이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소통을 위해서는 나무꾼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 정신의 원천인 무의식과의 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이와 같을 수 있다. 무의식의 자원이 의식적 삶에 수용되도록 역할을 해야 할 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 나무꾼은, 무의식의 잠재력과 에너지가 의식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안의 중요한 심적 요소라 할 수 있고, 그가 처한 가난한 상황은, 그 요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렇기에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심적 상황이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꾼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무의식과 의식의 소통에 변화가 일어나려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의식이 새롭게 변화해 갈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담 속 나무꾼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으로 진화해야 할 낡은 의식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무의식이 주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변화해가면서 마침내 새로운 차원의 의식과 삶에 참여하는 의식 요소로서의 성격도 갖기 때문이다.

본 민담의 첫 부분에서 주목해 볼 또 하나는, 새로운 바람을 품게 된 나무꾼 곁에서 예쁜 색시가 공감과 격려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설정이다.<sup>20)</sup> 시작부



터 주인공 나무꾼 옆에 여성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본 민담이 남성 의식의 분화·발달이라는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무의식 심층에 간직된 에너지와 잠재력이 의식에 수용되어 의식성의 발달을 이루어가려면, 무의식 심층의 심혼 콤플렉스와 의식 간 관계의 분화·발달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남성 의식의 발달을 위해서라면 아나마와의 관계 분화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sup>21)</sup>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의 나무꾼을 움직인 집단적 무의식의 기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나뭇짐이 계속해서 하늘로 사라짐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주인공은 열심히 일해 두 배의 나뭇짐을 모아온다. 그러나, 자고 나면 한 짐만 남고 사라지고 만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이를 우리 안의 심적 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애써 모아놓은 소중한 것을 뜻하지 않게 잃고 허탈해지는 이 장면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신이 경험한 바를 여기에 투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렵게 모아둔 것이 사라지는 이런 사건은 사실, 심리적 영역에서도 벌어진다. 어떤 심적 요소를 중심으로 모인 에

20) 나무꾼이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인지, 혼자 사는 것인지, 그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는 유화들에서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묘사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유화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으로, 또 어떤 유화에서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온다. 드물게, 나무꾼이 총각으로 묘사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나무꾼 옆에 여성적 인물상이 시초부터 함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체로 이야기들이 말미에서는, 주인공 가족과 원래의 복 주인공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해 준다. 여성적 인물상에 대한 언급의 생략은, 민담이 소비되던 시대의 남성중심적 집단의식의 상황의 반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21) 한국민담 『우렁각시』는 남성 의식의 발달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모성적인 대지 자연 속에 묻혀 홀로 발일을 하던 젊은이가 혼잣말로, 자신이 거둬들이는 곡식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중얼거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말하자면, 주인공이 자기 삶의 상태에 대해 자각을 하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순간 주인공은 우렁각시를 만나게 되며, 이후, 각시와의 관계를 발달시켜가면서 새로운 수준의 의식성을 또한 발달시켜가게 된다. 이는 마침내, 새로운 차원의 의식과 삶이 창조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이유경 (2018): 《한국민담의 여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p253-274.

너지가, 모이자마자 바로 어딘가 다른 심적 장소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예컨대, 자아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의식에 모인 심적 에너지가 모이는 족족 사라지며 의식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들은 도대체 어디로, 왜 사라지는 것일까? 민담은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나뭇짐이 사라져 허탈해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는 어떤 심적 요소가 투사될 수 있을까?<sup>22)</sup> 다양한 투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의식 상황의 투사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핍과 허탈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에게라면, 주인공의 상황이 쉽게 공감될 것이다. 만약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힘겨운 시대라면, 주인공에게 집단적인 투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 시대의 상황이 이야기에 반영되어 덧입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뭇짐이 한 짐만 남고 다 사라지는 사건은, 아무리 해도 의식에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 심리적 상황의 묘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먼저, 외적 사건들을 계속 쫓다가 에너지가 외부로 다 소진되고 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전 없이 방전만 계속 이어진 탓이다. 그렇다면, 방전을 줄이면 고갈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복잡한 외적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지지나 실제적 도움 등, 긍정적인 감정 자극 등을 제공받으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도를 해도 여전히 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다. 주위로부터 아무리 에너지를 충전해와도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때는 의식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무의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는 의식을 둘러싸고 무의식의 심적 요소들이 벌이는 내적 사건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내밀한 심리학적 고려가 특히 더 필요해진다. 사실 이런 일은, 개인의 삶에서만뿐만 아니라 활력을 잃어가는 집단 의식, 쇠락해가는 문명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본 민담에서, 나무꾼이 애써 마련해 온 나뭇짐은 결국 저 너머의 차원인 하

22) 마음을 깊이 자극하는 어떤 이야기를 몰두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를 대하는 이의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심적 요소들이 활성화되고 투사될 수 있다. 의식 자아를 비롯하여 그림자, 혹은 더 깊은 층위의 심혼 요소, 나아가, 무의식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 등, 다양한 것들의 투사가 일어날 수 있다.

늘에서 거뒀던 것이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의식의 심적 에너지가 모이는 족족 무의식으로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에너지를 거뒀다는 무의식에 어떤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

특기할 것은, 이러한 사라짐이 서사 전개에 중요한 첫 단추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 초입에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사라지거나 도둑맞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의 민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sup>23)</sup> 거기서도 이러한 최초 사건은 전체 이야기를 성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되며,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이 결국 이후의 전개 및 결말을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성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 이후 벌어질 전체 서사를 예고하는 첫 단추로서 특별한 목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뭇짐이 사라진 민담 속 사건을 ‘무의식이 의식에서 에너지를 거뒀던’ 우리 안의 심적 사건의 투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민담으로부터, 우리 안의 심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 어떤 이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무의식의 어떤 특별한 목적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 보기로 하겠다.

### 3. 하늘에 올라가 진실을 알게 되고, 이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의 큰 복을 간청함.

나뭇짐이 사라지는 원인을 추적하려다 주인공은 나뭇짐과 함께 하늘로 가게 된다. 그리고는 옥황상제를 만나며, 짐을 하늘로 거뒀던 것이 하늘이었음을, 그리고, 그에게는 작은 분량의 복만이 허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늘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반영된 심리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본 민담에서 특기할 것은, 주인공이 하늘 여행이, 짐이 사라짐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3) 예컨대, 그림민담 『황금새』에서는, 황금사과가 열리는 정원에서 매일 사과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는 이후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황금사과를 가져간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황금새였고, 이후 황금새를 찾아가는 긴 모험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열규(역) (2007):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사, 경기, pp331-338.

프랑스 민담 『황금사과』도 비슷한 도입부를 보여준다. 바위 뒤의 구멍에서 나온 사자가 가져갔다는 것이 다르고, 이후의 사건들도 다른 내용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긴 모험의 열매로 이야기가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김덕희(역음) (2011): 《세계민담전집 프랑스편》, 황금가지, 서울, pp119-129.

결핍 상황을 극복하고자 주인공이 스스로 길을 나서는 데서 시작하는 민담은 사실,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본 민담의 주인공은 것처럼 길을 떠나지도, 특별히 새로운 걸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저, 가난한 삶을 바꿔 보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늘 해오던 일을 더욱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런데 성과물이 밤 동안에 어디론가 계속 사라지자, 의문을 품고 어떻게든 사라진 것을 되찾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밤에 나뭇짐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를 하늘 여행으로 이끌고 있다. 요컨대, 무의식 심층으로의 여행의 직접적 계기 즉 개성화의 동기가, 밤에 사라진 내용물에 의해, 말하자면, 의식의 것을 거두어 간 무의식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셈이다.<sup>24)</sup>

사라진 것에 대한 나무꾼의 추적, 즉 의식의 물음은, 자연스레 밤의 상황 즉 무의식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러자 하늘은 이에 반응해 주인공을 그곳으로 이끈다. 하늘은, 무의식의 심층에 대한 보편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무의식이 이꿈에 의해 이제 무의식 심층으로의 여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자 더 열심히 일했던 나무꾼의 짐을 하늘이 거두어 간 사건은, 변화를 갈망하는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응답이라고 할 만하다. 아울러, 나무꾼의 하늘 여행은, 한계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한 의식 요소가 무의식에 이끌려 무의식 심층에 잠기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의식의 변화란, 기존의 방식과 태도에만 의지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신의 근원인 집단적 무의식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식은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26)</sup>

24) 개성화의 동기는 매우 다채로운 방식으로 자극되는 듯하다. 박상학은 다양한 구복 여행 설화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성화의 동기가 무의식의 원형상들의 자극에 의해서뿐 아니라 집단적 의식의 자극에 의해서도 유도된다고 하였다.

박상학 (2009): “한국민담 〈구복여행〉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4(2), p185.

25) 민담에 등장하는 하늘, 서천 서역국, 깊은 동굴, 저승 등은 무의식 심층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원형상들이다. 이러한 장소로의 여행은, 심적 요소가 무의식 심층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6) 이 과정을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성화, 혹은 자기(Self)실현의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융은, 개성화의 개념에 대해 다채롭고 풍부한 설명을 했던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개성화는 “개별 존재가 일반적인 집단적 정신으로부터 분화되어나오면서 나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정신 심층의 초월적 기능이 의식과의 밀접한 연결 속에서 개성적인 발달의 길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융은 이 과정은 집단적 규범이 처방해주는 경로로는 결코 도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Jung CG (1990): CW 6, *The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448-450.

그러나 이 과정은, 자칫 의식 자체의 와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의식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무의식에서 오는 안내에 섬세하게 조율해 가는 주의 깊은 관조와 인내이다.<sup>27)</sup> 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창조하는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민담 속 나무꾼은 하늘을 여행하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된다. 요컨대, 나무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된 사건은, 개성화의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에서의 성실함과 간절한 바람, 그리고 이에 반응한 무의식이, 함께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일 터이다.

주인공은 그의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 낮은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마주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질문을 던지며,<sup>28)</sup>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누릴 각각의 복이 총체적으로 배정, 관리되고 있는 하늘의 공간에서 자신의 복이 아주 작은 제한된 복일뿐임을 깨닫고 실망하던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른 이의 유독 큰 복을 확인하고는, 그것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옥황상제에게 간청도 한다. 이에 옥황상제는 조건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하늘의 공간에서 관리되고 있는 복주머니들은, 무의식에 보관되어있는 리비도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상이다. 무의식은 정신의 샘물과 같은 것으로서,<sup>29)</sup> 삶의 다양한 가능성과 현상 창조의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다. 사실, 의식도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며 의식에 작용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의식에게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하도록 촉구한다.<sup>30)</sup> 그렇기에, 의식이 무의식에서 오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건강하게 공급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간의 건강한 상호 협응이 필요하다. 무의식은, 꿈이나 환상 등 다양한 정신 현

27)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의식이 무모하게 의식의 일부로 동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에 다가갈 때는, 자아의 오만을 피하고 경건하게,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깊은 고려(*religio*)’의 태도로 다가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부영 (2011): 앞의 책, p125.

28) 주인공의 이러한 태도도, 우리가 깊은 층의 무의식과 마주함에 있어 필요한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자세와 관련해 이해해 볼 여지가 있다.

29)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제3판, 일조각, 서울, p85.

30) 이부영 (2011): 같은책, p60.

상을 통해 뜻을 드러내며 의식의 태도를 보상한다. 요컨대, 무의식이 요구하는 ‘의식의 태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본 민담에 등장한 ‘나름의 주인이 있는 다양한 복주머니들’은, 의식에게 어떤 태도 혹은 삶의 방식을 요구하며 그걸 전제로 제공되는 무의식의 에너지의 상으로 볼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내 것이 아닌 남의 복’은, 의식이 기존에 고수해 온 삶의 태도·방식에서는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에너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의 복을 빌려오겠다’는 것’은 의식이 이제는 전과 다른 삶의 태도·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의 큰 복을 조건부로 받아옴

육형상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의 복<sup>31)</sup>을 한시적으로라도 쓰게 해달라는 주인공의 간청을 들어준다. 말하자면, 의식의 절박한 요구에 무의식이 반응하여 조건부로 무의식의 에너지를 제공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복은 ‘주인공의 몫이 아닌, 주인이 따로 있는’ 복이다. 그 복을 누릴 자격과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후 주인공의 삶에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민담 속 주인공이 겪어가는 변화와 같은 사건이 실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무의식과 접촉하여 그 영역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의식에 그 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느낌, 생각, 바램 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적잖이 확인할 수 있다. 무의식을 접한 의식에는 어떤 변화의 계기들이 찾아오는 셈이다. 마치 무의식이, 자신이 제공한 에너지와 관련해 의식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용은 일찍이 무의식의 심층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작용력을, 본능과 원형이라는 ‘같은 뿌리의 두 측면’으로서 조명하면서, ‘본능’에는 그 의미적 측면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sup>32)</sup> 무의식의 에너지에는 그 에너지가 가야 할 길에 대

31)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진짜 복 주인의 이름은 유희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으나, 석승이라는 이름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다. 석승은 중국 서진(西晉) 시대의 유명한 부자이지만, 설화적 성격의 인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복을 빌리는 주인공인 차복이의 이름이 오히려 진짜 복 주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유희도 종종 있다는 점이다.

3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p57-58.

한 초월적인 지적 측면도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의식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무의식은,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어떤 상태 혹은 변화를 의식에게 늘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복을 빌려온 주인공이 겪는 삶의 변화에 대한 추적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복의 진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즉 이 복이 어떤 이에게 허락되는 복인지, 요컨대 어떤 의식성을 위해 준비된 정신 에너지인지를 추적해 볼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마찬가지로, 의식에 무의식의 에너지를 접하고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또한 언제나, 무의식이 의식에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의식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 5. 하늘에서 복을 빌려온 후, 큰 부자가 되어 복을 누리게 되기까지의 과정

빌려온 복이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그전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삶을 열어가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많은 유화(類話)들은 대체로 아주 간략하게 한 두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사일(망건, 쌀, 명태 등)’을 하여 잘살게 되었다고 언급하는 유화도 있고, 얻은 것을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교환 누적담(累積談)을 이야기하는 유화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 큰 부자가 된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사건이 연속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임은 이미 충분히 암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형식담의 서사구조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투사되기 알맞은 구조일 수 있다. 형식담 자체가 이미 원형적 배경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주인공이 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해가는 과정은, 무의식의 에너지를 부여 받은 의식요소에 일어나는 변화로 이해해 볼 수 있을 직하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33) 조희웅은, Arne-Thompson이 설화를 동물담·본격담·소담(笑談)·형식담으로 4분류 하지만 자신은 본격담 대신 신이담(神異談)과 일반담을 넣어 5분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어떤 경우든 형식담은 설화의 독립 장르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형식담은 일정한 형식 즉 ‘틀’에 치중하는 이야기로, 이 틀은 연쇄에 의한 누적성 또는 반복성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조희웅 (1996): 앞의 책, 일조각, 서울, p83.

### 1) 알밤들을 획득

하늘에서 돌아온 주인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나뭇짐을 해 온다.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일상이다. 그러나 잠시 쉬던 중 전과는 다른 특별한 계기 하나를 만나는데, 그것은 땅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들이었다. 주인공은 알밤을 한 보따리 주워 챙긴다.

주인공이 땅에 떨어진 밤송이들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이후의 이야기 전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알밤 획득은, 의식이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리비도의 상'을 흘려보내지 않고 반응을 하며 그것과의 역동적 관계를 이루어내는 심적 사건과 비견될 만하다. 이로써 '무의식의 에너지의 상'은,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스스로를 본격적으로 전개·변환시켜 갈 수 있게 되며, 의식 또한 함께 변화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밤송이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변환을 매개하는 계기로서 결코 작지않은 함의를 지닌다. 큰 변화도 결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의식에 준비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의 실현도, 의식이 무의식에서 오는 작은 단서에 반응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자신에게 찾아온 '변환의 계기'에 처음으로 반응을 해낸다는 자체가 실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나뭇짐을 하러 다녀오던 산길에, 과연 그전에는 밤송이들이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을까? 아마 떨어져 있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하늘을 다녀온 후에 비로소 주인공이, 전에는 못 보고 지나쳤을 밤송이들에도 시선을 돌리게 된 셈이다. 이는, 의식이 무의식의 작은 단서에 반응하는 것조차도 실은 무의식과의 접촉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변환 과정을 매개하는 첫 번째 계기가 왜 알밤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일단 알밤은 씨앗에 해당한다. 씨앗은 아직 분화되지 않았지만 무한한 분화의 가능성을 지닌, 일종의 시초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는, 연금술 상징에서 '원질료'가 갖는 의미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상이기도 하다. 연금술에서 말하는 원질료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즉 대극적 요소가 합일되었다가 점차 검어지면서 죽고 분해·부패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혼돈 상태의 성격



을 띠고 있으며, 그 안에 ‘세계 창조의 혼’이 숨겨져 있다.<sup>34)</sup> 이러한 원질료는 씻겨짐(정화, ablutio, baptisma), 하얗게 됨, 붉어짐, 등의 작업 과정을 거쳐, 마침내, 비루해진 물질세계를 새롭게 하는 ‘현자의 돌’을 탄생시킨다.<sup>35)</sup> 그렇기에 창조과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연금술사들은 최상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 아직 분화되지 않았지만 무한한 분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혼돈의 덩어리와도 같은 물질의 상태를 얻어내고서 거기서부터 힘든 작업의 과정을 시작했다. 결국, 하늘을 다녀온 주인공, 심리학적으로 번역하자면 ‘무의식의 근원적 심층을 접촉하고 온 의식’은, 이후의 첫 행보에서 이후 진행될 커다란 드라마의 시발점을 획득한 셈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한국에서 밤(栗)은 매우 친숙한 견과류이다. 혼례의 폐백에서 사용되는 밤에는 득남, 다산 등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출어 전의 뱃고사 등에서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밤 역시 생산과 생식 및 다산의 상징성을 지닌다.<sup>36)</sup> 제사상에 올려지는 밤은 조상의 위엄을 뜻하고는 하며,<sup>37)</sup> 도교에서는 밤알이 세 개일 때를 설률(楔栗), 6개일 때는 상률(象栗)이라 지칭하면서, 상률(象栗)을 하늘의 육성, 즉 문창궁(文昌宮) 별자리에 속하는 6개의 별 또는 상아(象牙)와 연결시키고, 이 밤을 얻으면 귀신을 굴복시키고 온갖 사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으며 성신이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sup>38)</sup> 본 민담에서 씨앗으로서 밤이 등장한 것에는, 본 민담이 많이 회자 되어 온 한국의 이러한 문화적 배경도 관여되어 있음 직하다. 한편, 과실(果實)로서의 ‘밤’과 시간으로서의 ‘밤’이 발음상 거의 유사한 점도 주목해 볼 만 하다. 하늘로 ‘밤’ 여행을 다녀온 주인공의 첫 번째 습득물이 ‘밤’이라는 것에도, 청자들의 연상과 마음의 투사를

34) 연금술에서 원질료를 묘사하는 방식은 무척이나 상징적이고 다채로우며, 이에 담긴 심리학적 의미도, 용이 상세히 다루었던 바, 매우 깊고 상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질료에 담긴 심리학적 의미의 일반적 측면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C.G. 용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p20, pp97-99, pp127-159.

3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같은 책, p20.

36)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한국문화상징사전2》, 두산동아, 서울, p260.

37)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같은 책, p261.

3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같은 책, p261.

39) 실제로,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가 의미상의 연결을 이루며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한자어 울(栗)의 발음은 ‘예(禮)’와 같은데, 그래서인지, 예기(禮記)에서 위엄을 뜻하는 글자로 울(栗)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같은 책, p261.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39)</sup>

## 2) 노인이 등장. 알밤을 부싷돌과 교환하자고 요구해 옴

주인공이 얻은 알밤들은 다음 서사 전개에 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하루 먹거리로 소비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알밤을 그렇게 다 소비하고 만다면, 주인공은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최초의 결핍 상태로 회귀하고 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상황은, 커다란 가능성을 품은 특별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 상황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인공이 알밤들을 습득하자마자 곧 한 노인이 등장해 서는, 부싷돌과의 교환을 제안한다. 노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주인공이 밤들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서 소비해버리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이나, 노인이 등장하고 그의 제안에 주인공이 응함으로 인해, 이야기는 힘을 얻어 계속 진행되어 나가게 된다.

실제로, 가능성이 씨앗 상태에 머무르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를 실제 심적 현실에서 적잖게 확인하게 되고는 한다. 노인의 등장은, 무의식으로부터 제공된 삶의 잠재적 가능성과 에너지가 의식에서 헛되어 소모되어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이 개입함을, 잘 시사해 준다. 요컨대 이 노인상은, '아직은 의식과의 관계에서 미분화의 씨앗 단계에 있는 가능성'이 분화를 이루면서 구체적인 특성과 내용을 갖춰갈 수 있도록 최초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면서 이후 이어질 변화의 과정에 불을 붙이는, 무의식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의식에서의 사건에 무의식의 특별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식이 반응함으로써 이후 의식에서의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어 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민담 속의 이 대목은 그와도 잘 부합이 되고 있다.

의식이 무의식과의 접촉에서 얻은 에너지를 삶에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 갈 수 있으려면, 무의식과의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조율이 꼭 필요하다. 용이 말했던바, 무의식의 에너지에는 그것이 흘러가야 할 길에 대한 무의식의 뜻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아 입장에서만 처리하려다 보면, 혼란 속에서 아무 성과 없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노인이 등장하

여 알밤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싯돌’을 준 것은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강한 부딪침으로 불꽃을 일으키는 부싯돌은 불을 지피는 원시적 도구이다. 부싯돌의 등장은 인류 의식의 진화와 문명의 발전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점을 이룬다. 말하자면 부싯돌로 인해, 미분화의 암흑 상태에 있던 잠재적인 문명의 가능성이 점화되어 밝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민담에서의 부싯돌의 등장도, 씨앗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구체화 과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융은, 원형과 본능이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결국 하나임을 언급하면서, ‘역동(dynamic)으로서의 본능’의 이면에 그것과 연관된 상(像)들의 체계가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을, 적절한 때가 무르익으면 그것들이 의식 표면에 등장하게 됨을 이야기했다.<sup>40)</sup> 융이 볼 적에, 연금술사들이 체험했고 귀욤 등의 스킨과 철학자들이 성령과 동일시했던, ‘암흑의 신비의 물질 가운데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 ‘자연의 빛’, 인간의 이해 능력보다 더 높은 ‘자연 감각 의식(sensus naturae)’ 등은, 내면의 원형에 대한 투사적 표현이라 할 수 있었다.<sup>41)</sup> 이는, 무의식의 ‘절대지(the absolute knowledge)’로서, “정신사의 배경 속에서 생명과 정신의 모든 현상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자연의 힘”이었다.<sup>42)</sup> 요컨대, 무의식의 에너지에는 그 에너지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초월적인 지적 측면이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 에너지를 부여받은 체험의식이, 그것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없이 그저 본능에 휘둘리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헛되이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큰 배반인 인지도 모른다.

### 3) 반복되는 교환과정

부싯돌의 등장 이후, 복의 구체화 과정이 본격화된다. 처음에 알밤으로 표현되었던 ‘최초의 가능성’은 부싯돌을 거친 이후, 노루, 말, 황소로 교환되면서 보

40) Hannah B는, 1935년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융이 행한 강연을 소개하고 있다.

Hannah B (2006):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Willmette, p142.

41)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57-58.

42) Hannah B (2006): 같은 책, p142.

다 구체적인 내용을 띠어가게 된다. 이는, ‘미분화 상태의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 위에서 구체적인 삶의 가능성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무의식의 자기표현으로 읽어볼 만한 대목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그 과정이, 변환의 계기들에 대한 주인공 나무꾼의 반응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리비도의 변환을 통한 무의식의 자기표현이 의식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계기를 마련하며 전개되어가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일련의 인물상, 교환되는 것들, 이로 인한 상황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이를 토대로,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 위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 가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흥미롭게도 이야기 속에서는 이 과정이 연쇄적, 점층적인 교환 누적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보편적 형식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의 보편적·원형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각 단계마다, 주인공이 습득한 대상물을 적절히 잘 다룰 능력을 지닌 인물상이 등장해서는 그 습득물을 내어주면 다른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들의 제안에 주인공이 순응한다. 그런 가운데, 주인공이 누릴 복은 양적으로도 확장되고 질적으로도 더욱 구체화 되어가며<sup>43)</sup> 마침내 주인공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에 다다르게 된다. 물론 그와 함께 주인공의 상황도 변화해가게 된다.

#### 4) 사냥해 온 노루를 건네받자 노인이 재등장함

나무꾼은, 부싯돌을 가져간 사냥꾼이 사냥해 온 두 마리의 노루 중 하나를 받는다. 구체화 되어야 할 ‘빌려온 복’과 관련된 알밤이, 부싯돌을 매개로, 사냥에서 획득한 노루로 바뀐 것이다.<sup>44)</sup> 나무를 채취하던 삶의 양태가 이전, 부싯돌을 계기로, 불을 활용해 자연 속의 동물을 수렵하는 삶과도 어우러지고 있다.

43) 점층적인 누적 교환 형식의 이야기는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새끼서발 설화, 남아프리카의 ‘전사가 된 탭바’ 이야기, 서아프리카의 ‘농부와 요정’ 이야기, 그림 민담 ‘어부와 그의 아내’ 등을 들 수 있는데, 무의식의 리비도 상의 변환 과정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해당 민담 출처: ① 임석재 (2011):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I, 평민사, 서울, pp157-158. ② 장용규 (2012): 《세계민담전집, 남아프리카편》, 황금가지, 서울, pp103-110, ③ Barker WH, Sinclair C (2007): *West African Folk-Tales, "Farmer Mybrow and the Faries"*, Yesterday's Classics, Ithaca. ④ 김열규(역) (2007): 앞의 책, pp126-137).

44) 유희에 따라서는 노루 대신 꿩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꿩도, 노루도, 가축이 아니라 가까운 자연 속에서 채취되는 수렵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 큰 확장이 일어난 셈이다.<sup>45)</sup>

그런데, 사냥물을 획득한 주인공 앞에 또다시 노인이 등장한다. 무슨 상황이기에 등장한 것일까? 나무꾼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를 우리 마음 안의 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 번이나 등장한 노인’에게서 우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

응은, 민담에 나타난 정신 현상에 관해 논하면서 ‘가이스트(Geist) 유형의 원형상’으로서의 노인의 의미에 대해 언급을 했던 바 있다. 응에 의하면, ‘가이스트 유형’이 노인으로 등장하는 빈도는 민담에서와 꿈에서 대체로 비슷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에게 “철저한 숙고나 운 좋게 떠오른 생각들, 즉 정신 내적인 자동장치”가 주인공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런 노인상이 등장해서 주인공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요컨대, 주인공이 내적·외적인 이유로 일을 스스로 완수할 수 없기에, 이를 보상하면서, 주인공에게 결핍된 ‘필요한 앎’이 인격화되어 등장하는 것이다.<sup>46)</sup> 민담 속 노인은 “누가, 왜,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성찰과 도덕적인 힘을 축적하여 실행에 옮기게 하고, 때로 필요한 마법의 도구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간섭은, “의식적 의지만으로는 비상한 성취에 도달할 정도로 개인의 인격을 통합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원형의 자발적 개입”, 즉 “원형의 자발적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노인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며 권유를 해주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곤경에 빠진 주인공의 암울한 처지를 꿰뚫어 보거나, 그를 계속 도와줄 정보를 마련해 줄 줄 아는 존재로도 나타난다.<sup>48)</sup> 한편으로는 지식, 숙고, 지혜, 영리함과 직관을, 다른 한편으로는 호의와 협조와 같은 도덕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그 정신적 성격을 충분

45) 이 대목은, 불을 발견하면서 의식의 변천·진화 과정을 겪어온 인류의 이야기와도 묘한 유비를 이루는 듯 보인다. 이는, 본 민담 속의 교환 누적담에 인류의 집단적 의식의 변화 과정이 희미하게 투영되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태의 교환 누적담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확충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6) 응은 이와 관련, 에스토니아의 한 민담을 소개한다. 이야기 속 주인공인 ‘학대받다 탈출한 한 고아 소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인을 만나 현재 뭐가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련해 중요한 조언을 듣게 되며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도 빌려 받게 된다.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p288-290.

47)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90.

48)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90.

히 드러내기도 한다.<sup>49)</sup>

요컨대 ‘노인’상은, 의식으로서의 발휘하기 힘든 특별한 앞이나 지혜가 필요하다든지, 신중한 숙고나 도덕적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등등, 곤경 혹은 위기 상황에서 등장해 역할을 해주는 원형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등장 자체가 그 순간이 무의식의 지혜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노루라는 리비도 상의 등장은, 리비도 변환의 과정이 다시 무의식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죽은 노루도, 하룻밤 먹거리로 소비되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일까? 드러난 잠재적 가능성이 다시금, 의식이 임의로 처분하기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일까? 아니면, 죽어 있는 게, 살아 작동하는 상태의 것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의식의 위기 상황에 무의식은 그에 걸맞게 보상적 활동을 벌인다. 내담자의 꿈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 우리는 이런 증거를 곧잘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민담들 속에서도, 주인공의 곤경 혹은 위기 상황에는 그를 돕는 원형상이 등장하고는 한다. 이는 결국, 민담에 투사·반영되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꿈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 5) 말로 교환됨

노인의 개입으로 사냥으로 획득된 죽은 노루는 살아 있는 말과 교환되며, 주인공은 그 말을 기뻐하며 집으로 가져온다. 하지만 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곧, 말을 요구하는 인물이 찾아온다.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 그는, 그 말이 천하의 명마라며, 황소에다 금 열 냥까지 보태 교환을 요구한다. 사실, 말이라는 동물상은 상징적으로 매우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민담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원형상이다. 땅 깊은 곳 혹은 바다의 심연에서부터 피처럼 약동하며 치솟는 ‘태초의 말’을 어둠, 지하 세계와 연관 짓는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데<sup>50)</sup> 그에 걸맞게, 말은 땅, 모성,

49) 용은 이와 관련, 발칸의 한 민담을 소개한다. 여기서 노인은 다급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부과된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익은 충고를 해준다.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93.

50) Chevalier J, Gheerbrant A (1996):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516.

달, 물, 강력한 마술적 힘, 어둠의 신비로운 아이, 죽음과 삶 모두의 운반자, '파괴적이지만 승리를 선사하는 불의 힘' '자양분을 공급해주면서 동시에 질식을 시켜버리기도 하는 물의 힘' 등의 의미와 연결되고는 한다.<sup>51)</sup> 말의 폭발적 활력은 전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 민담에서는 말의 상도, 잠시 등장했다가 바로, 그다음의 상인 황소로 넘어가고 만다. 이는 말의 형태를 취한 리비도 상에 또 다른 변환이 일어나야 함을 시사해 준다.

### 6) 황소를 얻고 농사를 시작하여 갑부가 됨

마침내 주인공은 황소를 얻게 된다. 밤톨, 부싯돌, 죽은 노루, 말을 거쳐 황소로까지 이어진 리비도 상의 변환 과정은,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모습과 역할을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만하다. 황소의 상 역시, 민담과 신화에 매우 많이 등장하여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 원형상이다. 저항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강력한 힘, 생명력, 창조력 등의 의미와 연관되면서, 세계를 수태시키는 신성과 연결되기도 한다.<sup>52)</sup> 농경 문화의 형성과 발전도, 자연 속의 강력한 황소의 힘이 문명 발전의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인류 의식성의 진화, 발달 과정도, 황소와 같은 강력한 리비도가 새로운 의식의 차원을 여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승화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 황소에 대한 신화나 설화에서 '황소의 희생'이라는 주제가 종종 등장한다는 점에 한 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은 이를 충동의 희생이라는 의미로 읽어내고 있는데, 그는 미트라스교(Mithraism)에서의 황소 희생제의, 신성한 제단에서의 '불의 신의 희생제의',<sup>53)</sup> '아티스-키벨레 제의(Attis-Cybele cult)'<sup>54)</sup> 등을 연결시키면서, 황소의 희생은 곧 신의 희생이며 강력한 충동성의 상징적 포기라고, 여기서는 제물의 봉헌자가 동시에 희생자가 되는 것이라고

51) Chevalier J, Gheerbrant A (1996): 같은 책, pp516~526.

52) 리그베다에 묘사된, 자유롭게 떠도는 정자로 세계를 수태시키는 루드라(Rudra), 비빌로 니니아 신화에서 엔릴(Enlil)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하늘의 황소를, 남성적 다산성의 신으로서의 디오니소스를 가리키는 황소, 빛나는 흰 소로 등장하여 유포파를 유혹하는 제우스, 농경의 창시자인 신농(神農), 바람의 신 치우 등,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사에서 우리는 황소 상의 이런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Chevalier J, Gheerbrant A (1996): 같은 책, pp131-136.

이야기했고, 아울러, ‘절실히 갈구되고 존중된 소유물’의 희생을 통해 리비도는 다시 새로운 형태로 얻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던 바 있다.<sup>55)</sup> 융에 따르자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의 드라마”, 즉 무의식 안에서 희생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비록 의식에 직접적으로 의식되지는 않더라도, 의식에 사용되는 표상 자료를 자극하거나 거기에 입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되며”<sup>56)</sup> 의식 발달을 가능케 한다.<sup>57)</sup> 어떤 면에서, 인류의 문명사 및 문화사는, 이와 같은 강력한 본능적·원형적 에너지가 의식 위에서 변환을 거치며 현상 창조로 승화되어 온 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황소를 얻게 된 민담 속 주인공도 이를 활용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큰 부를 축적하게 된다. 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올 뿐이었던 나무꾼이 이제는, 농토를 경작하고 수확물을 거두는 농부가 되며, 아무리 일해도 결과물이 모이지 않던 상태도, 일한 게 큰 결실로 이어지는 상태로 바뀐다. 이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무의식이 목적하는 새로운 의식의 삶에 적합한 형태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 심리적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무의식의 리비도가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과 함께 변환 과정을 밟아온

53) 불의 신 아그니(Agini)의 희생과 관련된 제의이다. 아그니는 인도에서 생명의 불꽃이자 에너지로서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한다고 여겨져 온 신적 존재인데, 제물을 태워 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간과 신들을 중재하는 사제인 동시에 스스로를 태워 희생하는 희생물이며, 그 바쳐지는 제물을 받는 자이기도 하다. 그는 새로운 불과 함께 재생하며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5): C.G. 융 기본저작집 제7권, 《상징과 리비도》, 솔출판사, 서울, p246.

Eliade M, 이용주(역) (2008): 《세계종교사상사1》, 이학사, 서울, pp317-318.

54) 이 제의에서는, 대지신에서 비롯된 ‘곡물 혹은 식물신’이 대지신의 노여움으로 거세·희생되었다가 대지신의 후회와 비통 속에 다시 되살아나는 과정이 표현되고 있다.

Eliade M, 이용주(역) (2008): 같은 책, pp390-397.

5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6): C.G. 융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p425.

5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6): 같은 책, p429.

57) 융은 희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예컨대, 고대적인 동물 희생에 의해 상징화되는 미트라스 희생제가 오직 충동적인 인간을 길들이고 혼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기독교적인 희생의 사상은, 동물적 충동을 길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전적인 포기 및 그를 넘어서는 인간 특유의 정신기능들의 훈련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자연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강한 훈련이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6): 같은 책, p435.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무의식의 섬세한 개입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마치 의식이 무의식의 에너지를 삶의 큰 결실로 이어가듯, 황소의 힘을 농경에 활용하면서 마침내 큰 갑부가 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은, ‘황소’로 표현된 자연의 힘, 말하자면, 무의식의 강력한 본능적 에너지가 새로운 차원의 삶과 문화의 창조로 승화되어 가는 과정의 묘사로도 이해해 볼 직하다.

### 7) 교환과정에서 나무꾼의 태도

하늘 여행 전의 나무꾼의 상황, 즉, 의식이 아무리 에너지를 모아도 무의식이 거두어 가던 상황은, 주인공이 하늘로 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의 복을 빌려오게 된 이후로는,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에 에너지를 제공하며 의식의 변화와 발달을 자극하고 이끄는 상황으로 변한다. 하늘에서 빌려온 복은, 복과 관련된 계기들이 교환되는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 간다. 이는 말하자면, 무의식에서 제공된 에너지의 상이 의식 위에서 변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의 때 단계에서 마다, 특별한 원형상이 등장해 직접 개입한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주인공이 황소의 힘을 활용하여 농사를 열심히 짓게 되면서부터는 주인공의 노력에 큰 성과가 뒤따르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의식에서 진행되는 일도 결국 무의식의 목적에 잘 부합될 때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사실, 의식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꼭 의식의 바람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다. 의식에서 아무리 계획하고 진행을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에 발목 잡힐 수 있음을 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실제로 어느 문화권이든, 인간적 영역에서 벌이는 일들을 둘러싼 초월적 영역의 허락 혹은 발목잡기와 관련한 관념이 존재한다. 이는, 초월적 영역이 호응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때 인간적 영역에서의 성실한 시도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요컨대, 인간의 의식적 시도에는, 의식의 관점을 넘어선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겸손하고도 신중한 성찰이 함께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복을 빌려온 주인공은, 자신이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 것이 ‘하늘’이 임시로 허락해 준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무의식을 접하고 심층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 의식이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통찰을 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아마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라면, 물

론 더 알아가야 할 것들,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겠지만, 의식과 무의식 간의 협응 관계가 유지될 기본 조건은 준비되어있는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의식의 변화과정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6.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과제

드디어 큰 갑부가 된 주인공, 그러나 그에게는 숙명적 과제가 남아 있다. 때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모든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약속의 이행이다. 물론 주인공은, 복을 누려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터였다. 이는, 자신이 얻은 에너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어 온 의식의 상태에 부합된 직하다.

그러던 어느 날, 만삭의 태아를 임신한 걸인 부부가 찾아오고, 놀랍게도 진짜 복 주인이 태어난다. 이제 주인공이 복을 누릴 기한은 7년으로 한계 지어지며, 복의 이양과 관련한 걱정은, 막연한 게 아닌 구체적인 번민으로 변한다.

### 1) 진짜 복 주인의 비천한 탄생

그런데 왜, 큰 복을 누릴 귀한 존재가, 가난하고 비천한 걸인의 아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흥미롭게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옛이야기에서, 귀한 존재가 비천한 배경에서 성장하여 큰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던 것들에서부터 새로운 큰 변화가 시작된다든지,<sup>58)</sup> 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버려지고 소외된 것들이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나아가, 궁핍해진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무시되고 있는 존재들이 변화나 구원이 시작점 혹은 계기가 되는 사건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도 곧잘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아의 일방성으로

58) 예컨대, 길에서 자는 거지를 돕는다든가 거지들을 불러 크게 대접한 것으로 인해 이후의 상서로운 사건들의 계기가 열리는 이야기들을 한국의 민담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거지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형을 바꾸다가 망하는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인경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장서각 연구총서4, 민속원, 서울, pp152, 308, 407, 576, 579, 580.

인해 정신의 뿌리인 무의식과 단절되면서 삶의 활력과 의미를 잃고 위기에 처한 의식이,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심적 요소를 만나 변화의 과정을 밟으며 새로운 의식성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 상황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 주의 깊은 심리학적 관찰은, 의식에서 소외된 정신의 열등한 측면이 모든 이들에게 다 존재하고 있음을, 아울러, 당사자가 자신의 그러한 측면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신의 발달과 삶의 건강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의식에서 소외된 채 무의식에 잠겨있던 심적 요소가 의식에 수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식은 무의식과 연결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 새로운 의식성을 획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과정의 투사라고 볼 수 있는 연금술 상징에서도,<sup>59)</sup>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물질혼(物質魂)인 라피스(lapis)는 하찮은 형상으로 나타나고는 한다.<sup>60)</sup>

## 2) 주인의 등장이 만들어내는 수(數)적 구조: 중심에 제5요소를 품은 4위 구조

본 민담에서는, 복 주인의 등장으로 인해 만들어진 수적 구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up>61)</sup> 흥미롭게도 걸인 부부의 등장으로 인해 주인공 부부와 걸인 부부가 함께 4위성(四位性, quaternity)의 구조를 이루고, 이어, 이 4위성을 바탕으로, 제5의 요소라 할 만한 새로운 아이, 즉 원래의 복 주인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의 구조는 하나의 연속체 안에서 발생한 대칭에 한 번 더 대칭이 일어난 경우로서, 수직과 수평의 교차, 네 가지 요소의 출현 등을 야기하는데, 이는 “네

59) 건강성과 활력을 잃은 빛바랜 의식성이 정신의 근원에서 오는 변화의 동인을 힘입어 새롭게 재탄생하는 정신적 과정은, 본연의 가치를 잃고 비루해진 물질을 ‘물질의 근원’ 및 ‘물질 변화의 영’을 힘입어 고귀한 물질로 재탄생시키는 연금술 과정과 서로 비견될 만하다. 그렇기에, 정신적 과정이 연금술 과정에 쉽게 투사되어왔을 것이다.

60)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 C.G. 용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pp15-33, pp50-7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 같은 책, p135.

61) 등장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수(數)적 구조는 그 자체로 인물들 상호 간의, 즉 심적 요소 간의 관계, 각 요소의 역할, 전체적 이야기 흐름에 어떤 성격과 질서를 부여할 수밖에 없기에, 늘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Von Franz는,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을 할 때, 등장한 형상들의 수를 세는 것에 유의하고 수의 상징과 역할에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용연구원, 서울, p57.

방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시공간 지각, 의식하는 행위와 관련해 드러나는 네 가지 기본적인 경험 양식, 등을 가능케 하면서” “자아의식 구성에 있어 원형적 배경이 되어준다.”<sup>62)</sup> 용은 이러한 ‘의식의 기초’를 ‘자기(Self)’라고 부르기도 했다.<sup>63)</sup> ‘하나의 네 측면’이 그림이나 모티브로 배열될 때, 이는, “의식화를 통해 서로 다른 대극들을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 혹은 “본래 통합되어 있는 것이었던 대극들이 현실에서도 통합되어 실현됨”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sup>64)</sup> 그런 맥락에서, 결인 부부의 등장과 함께 구현된 사위성은, 그간 진행되어 온 이야기 흐름이 대극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지점에 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요컨대, 그간의 심적 사건들이 이젠, ‘대극 요소들의 통합을 통한 전체성의 실현과 새로운 의식성의 탄생’이라는 결정적 과제 앞에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민담 속 주인공의 고뇌는, 이 과제가 그로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잘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대극들이 모이는 4위 구도의 중앙에, 막 출생한 진짜 복 주인이 제5의 요소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중적 대칭이 교차하는 중앙지점에 두 쌍의 대립물을 중재하는 제5요소(quintessence),<sup>65)</sup> 즉, 대극들을 통합하는 중재자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Allendy R은 4와 1의 합으로서의 다섯에 대해, “네 요소를 넘어서며 상징적으로 사람의 몸, 즉 소우주와 연결되는 유비를 지니기에 유기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특별한 어떤 것으로 간주 될 만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숫자라고, 진술했던 바 있는데,<sup>66)</sup> 폰 프란츠(Von Franz ML)는 이에서 더 나가, 연금술에서의 제5의 요소를 언급하며, 이것은 그저 넷에 부가되는 다섯 번째 요소가 아니라, 가장 정제된, 그리고, 네 요소의 가장 정신적이고 가장 정제된 통일체를 의미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sup>67)</sup>

62) Abt T, 이유경(역) (2007): 《용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p129.

63) Abt T, 이유경(역) (2007): 같은 책, p129.

64) Abt T, 이유경(역) (2007): 같은 책, p129.

65) Abt T, 이유경(역) (2007): 같은 책, p133.

66) Abt는, Müller KA와 Allendy R를 인용하면서 숫자 4와 숫자 5의 수학적 경계 및 생명의 숫자로서의 5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Abt T, 이유경(역) (2007): 같은 책, p133.

67) 아울러, 이 다섯 번째 요소는, 네 요소 안에 시초부터 존재하다가 그것들로부터 정제되거나, 혹은 네 요소가 서로 순환하는 과정에 의해 산출된다.

Von Franz ML (1974):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pp120-12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민담에서의 진짜 복 주인은, 대극들의 통합을 중재·통합하면서 전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특별한 정신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상이라고도 할 만하다. 실제로 그의 등장과 함께, 숨겨진 전체성 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기할 것은, 이 제5의 요소가 어린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원형상으로서의 어린이의 상징적 의미를 확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이 결정적 작용의 성격과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어린이로서의 복 주인

응은 다양한 신화 연구 자료들, 그리고 신화적 관념들의 결합에 견줄 수 있는 ‘꿈과 정신병의 산물들’ 등을 고찰하면서, 모든 전통 위에 ‘원초적 재생(autochthonous revival)’의 주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이를 통해 볼 때 무의식적 정신 안에 이런 신화를 형성해내는 요소들이 있음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와 관련, 어린이 원형과 관련된 정신 현상에 주목했던 바 있다.<sup>68)</sup>

응에 의하면, “신경증을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무의식의 원형적 토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다.”<sup>69)</sup> 이는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서는 신체 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렇기에, “문화적으로 획득된 의식의 각 분화 단계마다”, 그 단계에 상응하는 무의식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sup>70)</sup>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삶을,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삶에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sup>71)</sup>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뿌리 없는, 그리하여 암시에 절망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정신적 유행병에 취약한 의식이 생성되고 말 것”<sup>72)</sup>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연결되어야 할 “우리 안”의 “과거”가 초라하게 평가절하되어 있게 되면, 절망적인 현재의 삶을 구제할 구원자 역시 초라함 그 자체이거나 초라함에서 생겨나는 모양을 띠 수밖에 없다.<sup>73)</sup> 실제로,

68)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앞의 책, pp238-239.

69)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앞의 책, p244.

70)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44.

71)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45.

72)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45.

73)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45.

신들의 형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고지자(告知者)는, 생겨날 것 같지 않은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난쟁이, 어린이, 동물 등으로 흔히 출현하고는 하는데,<sup>74)</sup> 이는, 민담 혹은 꿈속의 어린이 상이 ‘구원자로서의 어린이 신’의 원형적 모티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린이 신’의 원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어린이 주제에 담긴 그 밖의 모든 신화적 측면과도 밀접하게 뒤섞여 있다.<sup>75)</sup>

용은, “내버려 짐, 위협에의 노출 등 어린이의 보잘것없는 출발점의 전형적 형식”이 한편으로는 “신비 가득한 경이로운 출생”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출현하는 어린이 원형이,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극의 충돌 상황에서 무의식적 정신이 만들어내는 해결책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sup>76)</sup> 용에 의하면 이러한 해결책은, “의식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비합리적인 성질의 제3의 것”, “의식을 뚫고 들어오는 의미심장한 창조의 예감”, “창조적인 성질을 지닌 어떤 정신적 체험” 등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다.<sup>77)</sup> 그렇기에 어린이 상에는 ‘누미노제(numinose)적 특성이 생겨나게 된다.’<sup>78)</sup> 용은 나아가, 모든 어린이의 신화에서 쉽게 눈에 띄는 “정복할 수 없는 어린이”, 즉, “막강한 적들에게 힘없이 내맡겨져 계속 말살될 위협을 당하지만” 모순되게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서의 어린이, 자웅동체적인 대극합일상(對極合一像)으로서의 어린이, “시작하는 존재이자 마감하는 존재”로서의 어린이 등, 어린이 상에 담긴 다양한 의미들도 이야기했는데<sup>79)</sup> 이 또한 어린이 원형상의 누미노제적 특성을 시사한다. 이도희 등은, 전 세계의 민간설화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다양한 유형을 세세히 분석하며, “개성화 과정에서 대극을 합일시키는” 전일성(全一性)의 상징으로서 어린이가 갖는 의미에 주목했던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탄생하는 어린이 영웅은,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하게 하거나 병든 세계를 치유한다든지 운명을 개척하는 등, 개성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up>80)</sup>

7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45.

7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45.

76)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57.

77)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57.

78)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57.

79)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같은 책, p260-271.

80) 이도희, 이부영 (1993): “심리학적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심성연구》 8(1,2), p34.

본 민담에서도, 어린이 상은 무척 특별한 순간에 등장하고 있다. 하늘에서 빌려온 복을 누리는 흐름이 정점에 이르고 동시에 ‘언젠가 돌려주어야 복’에 대한 주인공의 걱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무렵, 진짜 복 주인이 ‘결인 부부의 아기’로 탄생한 것이다. 이제 그 아이가 7세가 되면 주인공은 모든 걸 그에게 넘겨야 한다. 그 순간은 그간의 모든 이야기 흐름이 종합될 결정적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복의 진짜 주인인 아이는 그때 중심적 존재로서 역할이 예정된 특별한 존재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복의 원래 주인이, 심적 사건의 흐름이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 지점에 이르렀을 때 등장하여 모든 대극적 긴장을 창조적으로 총정리해주는, 즉 ‘우리 안의 초월적 심적 작용’을 반영하는 원형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시사한다. 특히, 주인공 부부와 결인 부부라는 사위성(四位性, quaternity) 구도의 중심에 제5 요소의 성격을 띠고 등장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점은 더욱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 4) 7세에 복을 이양받는 복 주인

모습을 드러낸 진짜 복 주인은 바로 본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7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복 주인이 7세가 되는 동안 복을 누려온 주인공의 한숨은 깊어간다. 비록 자신의 복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도 있었고 등장한 진짜 주인을 알아보고는 집으로 들어 함께 살기도 하지만, 복을 다시 돌려준다는 건 사실 어려운 과제인 셈이다. 실제로 어떤 유회(類話)에서는, 복을 넘기기까지 주인공이 겪는 내적 갈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서사는, 복의 이양을 위해서는 주인공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을, 아울러, 복 주인이 자신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기까지에도 준비 단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무의식에서 새로운 여러 가능성이 의식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도, 그것의 진정한 수용 즉, 그것이 의식에서 본격적으로 충분한 작용을 하게 되기까지는 또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정신 안에서도 이렇게, 본 민담에서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숫자 7은, 민담, 신화, 종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띠고 등장한다. 한 주일, 한 음계 등에서의 7에는, 원환(圓環)을 돌아 같은 지점에 왔으나 처음과는 다른 차원에 이르게 되는, ‘나선형 방식의 전개’의 의미가 담겨있으

며,<sup>81)</sup> 3과4의 합으로서의 7은 “시간의 비가역적인 발전을 뜻하는 3”과 “네 요소로 표현되는 실재성”의 통합을 뜻하기도 한다.<sup>82)</sup> 그런가 하면,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지상 세계에서 나타난 운명과 그것의 전개를 일곱 행성이 끼친 영향의 결과로 간주해 오기도 했다.<sup>83)</sup> 생장, 다산, 변화와 숫자 7의 관련성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며<sup>84)</sup> 내부의 성장, 완성을 향해가는 발달, 의식화를 위한 발달 등과 관련해서 7이 등장하는 경우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다.<sup>85)</sup> 요컨대 7에는, 어떤 완성의 실현을 지향하며 움직이는 현상적·심적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끊임없이 투사되어 온 셈이다. 복 주인이 7살이 된다는 것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인격의 발달 과정에서도 7세는 중요한 기점을 이룬다. 7세를 즈음해서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등, 아이의 인지적 발달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초등 교육 시작 등, 사회적 차원의 교육이 본격화되고, 성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구별도 분명해진다. 아울러, 부모 품에서 떨어져 동료들과 친밀성을 추구하며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복 주인이 7살이 된다는 것은, 그가 기초적인 준비 과정을 마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음을, 즉, 복 주인으로 표현된 심적 요소가 이제 본연의 역할을 전개해가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본 민담에서 주인공과 복 주인이 함께 지내는 7년은,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과 삶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변화를 겪어 온 의식 요소가 ‘대극들이 통합되는 대변환을 앞두고 가까이 찾아온 초월적 요소’에 온전히 주도권을 넘기게 되기까지의 과정으로서도 이해해 볼 만하다. 요컨대, 대극적 요소들이 통합되면서 도래하는 새로운 의식성의 체험은 의식이 전체정신의 기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도권을 넘길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준

81) Abt T, 이유경(역) (2005):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141.

82) Abt T, 이유경(역) (2005): 같은 책, p141.

83) Abt T, 이유경(역) (2005): 같은 책, p141.

84) Abt T, 이유경(역) (2005): 같은 책, p143.

85) Abt는, 이와 관련, 다양한 측면적 입문 과정에서 밝아야 하는 일곱 단계, 단테의 신곡에서도 묘사된 바 있는,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지나야 할 지옥의 일곱 단계와 연옥의 일곱 단계, 미트라교에서의 일곱 개의 행성을 거치는 여정, 연금술에서의 일곱 단계, 요가의 일곱 차크라, 그리고, 니자미(Nizami)라는 페리시아 신비주의자가 쓴 ‘일곱 그림(Haf Pakar)’에 등장하는, 제각기 다른 영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 하나씩 7일 동안 영웅에게 들려주는 일곱 공주 이야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Abt T, 이유경(역) (2005): 같은 책, p143.



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7. 마지막 과제 수행과 대반전: 마지막 과제 수행의 의미

드디어 주인공은 모든 걸 ‘진짜 주인’에게 넘긴다. 그러자 이야기 흐름에 뜻밖의 대반전이 일어난다.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모든 소유권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음에도 주인공은 새로운 구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모든 걸 포기한 지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제3의 상태가 창조된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이 복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하늘이 정한 주인’에게 완전히 이양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의식성의 탄생도 실은, 자아의식이 자신의 주도권을 ‘전체정신의 핵인 자기(Self)’에게 온전히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낡은 의식이 기존의 관점과 태도에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무의식에 준비된 인격 변환의 과정이 의식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용은 이와 관련, 봉헌·희생 제의의 의미와 관련, 다양한 확충 자료들<sup>86)</sup> 특히, 가톨릭의 성체(聖體) 미사(Mass) 및 이와 의미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연금술 상징을 고찰했던 바 있다.<sup>87)</sup> 봉헌물이 거룩해지고 그와 함께 미사 참여자들의 정신적 변화과정이 일어나는 성찬의 비의(秘儀)는, 용이 볼 적에는, “그 자신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유한한 인간의 심혼”이 “그 리스도로서 표현되는 전체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었다.<sup>88)</sup>

86) 용은 3세기의 자연철학자이자 연금술사였던 초시모스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이와 연결되는 다양한 유비(類比)들을 이야기한다. 용은, 아즈텍 제의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되살아나는 “태양과 전쟁의 신” 위칠로포츠틀리(Huitzilopochtli), 미트라교에서 자기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갖는 미트라 신의 황소 희생,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미가 담긴, ‘아티스(Attis) 풍요제’에서의 황소 가죽 벗기기 등, 여러 확충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8): C.G. 용 기본저작집 제4권, “미사에서 의 변환의 상징”,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서울출판사, 서울, pp191-224.

87) 용은 초시모스의 환상을 “심혼의 자기표현”으로 바라보면서, 환상 속에 등장하는 ‘희생집행자이자 희생제물로 등장하는 사제’, ‘검에 의해 살해당하는 용’ 등과 같은 희생 모티브가 여러 많은 연금술 논문에서도 자주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언급했다. 연금술에서, “검에 의해 쪼개지거나 꿰뚫리거나, 또는 토막토막 잘려 나가는” 요소들은 “검은 용해” 또는 “원소 분리”를 일으키는데, 이로부터 혼돈스러운 최초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뒤이어, “새로운 형상의 각인” 또는 “상상력”에 의해 새롭고 완전한 육체가 태어나게 된다.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p197-198, 207-209.

88)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263.

그러나, 이러한 내려놓음은 물론 결코 녹록한 것일 수가 없다. 기존의 세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고통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의식으로서의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적 삶에서 제대로 꽃을 피울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본 민담의 결말은,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얻어 누리고 있어 온 것들을 무의식이 요구하는 때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전체정신의 기획에 반하는 의식의 뜻이 온전히 비워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풀리지 않던 문제가 창조적으로 해결되며 새로운 경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담에 반영된 우리 마음의 심층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89)</sup>

## 8. 순탄해 보이는 서사 전개

민담 속 주인공은, 하늘에 다녀온 후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의 계기들'에 비교적 잘 반응해 간다. 이야기의 흐름도, 긴장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인다. 그래서일까? 많은 유화(類話)들이 이 과정을 간략한 설명으로 끝내고 있기도 하다. 의식이 무의식에서 받은 에너지를 무의식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해가고 있다면, 그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무의식의 의도가 의식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꼭 순탄하게만 풀려가지는 않음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게 된다. 의식의 경직성, 불협응적 태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경우, 리비도 변환 과정은 무의식이 만드는 다른 우회로들을 거치며 무척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본 민담도, 만약 주인공이 자신에게 찾아온 계기들에 적절히 반응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격으로, 예컨대, 복잡한 굴곡 속의 험난한 모험담으

89) 흥미롭게도 이는 동아시아의 지혜 전통, 특히 노자의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비움'의 해법을 떠올리게 한다. 이부영은 노자 48장의 글귀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음미하며 '덜어냄'의 의미를 조명했다(48장 원문: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取天下常以無事, 及其有事, 不足以取天下). 이부영은, 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덜어내야 할 것은 의식의 간섭이라고,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게 두어두며 의식의 간섭을 덜어내고 또 덜어낼 때 여기에 새로운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부영 (2012): 《노자와 음》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길사, 파주, p126, p61.

로 바뀌었을 수 있을 것이다.<sup>90)</sup> 복은 어쨌든 원래의 진짜 복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의식이 전체정신의 뜻을 의식적인 삶 속에 구현해내고자 하는 기획이 의식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를 임상 현장에서도 실제로 확인케 된다. 결국, 다양한 굴곡과 우회로들도,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에서 보자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최적의 설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의식의 활동은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것처럼 다채롭고 섬세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담 속 주인공은, 만삭의 걸인 부부를 접하게 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집 안으로 들인다. 이어, 태어난 아이가 원래의 복 주인임을 알게 되고는, 그 아이도 받아들이며, 마침내 정해진 때가 다가오자,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며 전 재산을 다 넘긴다. 주인공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변화의 계기들에 적절히 반응해 온 그간의 삶의 맥락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하늘 여행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이야기는 또 다른 맥락 속에서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무의식이 이끄는 변환의 드라마가 의식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sup>91)</sup>

## 나가는 말

본 민담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의식성의 차원을 실현

90) 낚고 고루해진 통치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의 주도권 이양은 많은 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데, 이 주제를 둘러싸고 비교적 서사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완강한 저항과 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기도 하며, 때로는 비극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이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여러 삶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91) 원형은 의식에게 다양한 측면을 띠고 다가올 수 있다. 융은 민담에 나오는 가이스트(Geist) 원형에 관해 설명하면서, 많은 원형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며 “밝고 위를 가리키는”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또한 부정적, 비호의적이라든가 대지적 성격을 띠면서 “아래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그런가 하면 중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앞의 책, 솔출판사, 서울, p298.

하기 위한 활동이, 즉 즉 개성화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마음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조명해 볼 수 있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인 나무꾼의 삶이 처한 한계 상황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의식에 대한 상징적 묘사로서 이해해 볼 수 있었고, 나무꾼이 하늘에서 확인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의 큰 복은, 의식의 상황에 반응하여 무의식이 준비하고 기획한, 가능성 단계의 새로운 의식성 혹은 삶의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나무꾼은, 변화가 필요한 낯은 의식성인 동시에, 장차 도래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그에 맞춰 변화해가는, 심적 요소라 할 수 있었다.

민담의 주인공은 애초,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저 자신이 하던 것에 더욱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에 맞추어 신기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러한 설정이 본 연구자에게는 신선하고 특별하게 다가왔다. 이로 인해 본 민담을 계속 관심을 두고 살피게 되었다. 개인이든, 사회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러함에도 별반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다. 변화에 대한 바람이야 마음에 가득하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결국,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더 충실히 할 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민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삶의 상황에도 반응하여 일련의 심적 사건들을 일으키며 새로운 변화의 계기들을 창조해낸다는 것을, 아울러, 당사자가 그 계기들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민담 속 주인공, 즉 변화가 필요한 낯은 의식성은 결국, 무의식 심층을 만나게 되며, 이어, 무의식이 제공하는 계기들에 성실히 반응하면서, 확장된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과 삶의 지평을 열어 간다. 이는 변화를 요청하는 의식에 반응하여 결국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활동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정신의 이러한 놀라운 자율적인 활동이 있을진대, 이에 귀 기울이고 조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낯고 활력을 잃은 의식과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가능성으로서의 새로운 의식, 이 두 원형적 요소는 대립과 투쟁 속에서 다채로운 심적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이로부터 통합을 이룬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이 탄생하고, 생명은 그 생기와 활력을 의식의 삶을 통해 계속 표현해가게 된다. 사실, 이러한 심적 과정은 모든 민담에 핵심 주제로서 깊이 반영되어 있다. 본 민담에서는 이러한 대립과 통합

이 주로, 북 이양의 때를 앞둔 주인공의 고민, 결단, 이후의 예기치 못했던 창조적 대반전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변화의 계기에서마다 자기 역할을 잘 해왔던 주인공임에도 막상 북 이양을 해야 하는 지점이 가까이 오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자 이와 맞물려, 정신의 전체성과 거기서 나오는 초월적 정신기능을 반영하는 상징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의 진짜 주인의 비천한 탄생, 그와 함께 구현되고 있는 ‘제5요소를 품은 4위 구도’, 북 이양이 이루어질 시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숫자 7의 상징성 등은, 북 주인이 대극의 통합을 이룰 초월적 기능과도 관련된 상징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상의 출현은,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그렇기에 초월적 계기의 개입이 요청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었다.

‘내어 줌’이라는 주제가 민담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자에게 각별하게 다가왔다. 하늘에 간청하여 빌려온 북이 주인공의 삶에서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사건의 반복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는 마침내, 모든 걸 원래의 주인에게 이양하는 마지막 과제의 수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질적인 것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있었다. 물론, 누리고 있던 좋은 걸 내어주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게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수행을 섬세하게 이끌며 돕는 활동도 또한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본 민담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의식과 삶을 창조해 가는 개성화란, 적절한 때에 익숙해진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의 반복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우리 시대는, 큰 성과를 이룬 합리적 문명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 이면에 질게 드리워진 어두운 측면들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후와 생태 환경의 위기, 대형화된 재난, 부의 양극화, 개인의 소외, 자기 존재의 뿌리와의 단절, 삶의 활력과 의미 상실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해결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해결이 녹록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어쩌면 이 또한 한계 상황이며, 삶과 사회,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 이전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 본 민담을 통해 접

할 수 있었던 우리 마음속의 진실 한 가지에, 즉, 의식이 한계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갈구하는 한,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에 반응하여 어떤 과정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한 번쯤 주목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본 민담은, 개인이든 사회든,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수록, 정신 심층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주의 깊게 조응할 필요가 있음을, 실은 거기에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신 심층에서 제시하는 해결의 단서를 발견하고 그에 성실하게 반응해 가는 것은 당사자 각자 몫일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통찰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쩌면, 민담 속 주인공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러함에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품고는 끈질기게 그 이유를 쫓고자 했던 것, 그러다 마침내 하늘에 들리어져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작은 변환의 계기들을 놓치지 않고 그에 성실하게 반응해 간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근본 심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민담이 제시해주는 소중한 실마리일 수 있지 않을까?

## 참 고 문 헌

- 김덕희(역음) (2003): 《세계민담전집집 프랑스편》, 황금가지, 서울.
- 김열규(역) (2007): 《그림형제 동화집》 중쇄본, 현대지성사, 경기.
- 김지연 (2017): “민담 <외쪽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2(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배도식 (2009): “차복여행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27집.
- 박상학 (2009): “한국민담 <구복여행>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4(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신동훈(역음) (2003): 《세계민담전집집 한국편》, 황금가지, 서울.
- 이도희, 이부영 (1993): “심리학적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심성연구》, 8(1, 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이부영 (1999): 《그림자》, 한길사, 서울.
- \_\_\_\_\_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_\_\_\_\_ (2011): 《분석심리학》 제3판, 일조각, 서울.
- \_\_\_\_\_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제2판, 집문당, 서울.
- \_\_\_\_\_ (2012): 《노자와 용》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길사, 파주
- 이유경 (2006): “민담 〈손 없는 색시〉를 통한 여성 심리의 이해”, 《심성연구》, 21(1),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_\_\_\_\_ (2018): 《한국민담의 여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이인경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장서각 연구총서4, 민속원, 서울.
- 임석재 (1988-1993):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서울.
- 장용규(류음) (2012): 《세계민담전집, 남아프리카편》, 황금가지, 서울.
- 정재민 (1997): “차복설화의 구조와 복에 관한 인식”, 《구비문학연구》, 제4집.
- 조희웅 (1996): 《한국설화의 유형》 증보개정판, 일조각, 서울.
- 최래옥 (1979):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경기.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한국문화상징사전2》, 두산동아,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류음) (1980-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 Abt T, 이유경(역) (2005): 《용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 Barker WH, Sinclair C (2007): *West African Folk-Tales*, “Farmer Mybrow and the Faries”, Yesterday’s Classics, Ithaca.
-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lated by John Buchanan Brown) (1996):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Eliade M, 이용주(역) (2008): 《세계종교사상사1》, 이학사, 서울.
- \_\_\_\_\_ (2008): 《세계종교사상사2》, 이학사, 서울.
- Hannah B (2006):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C.G. 용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8): C.G. 용 기본저작집 제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4): C.G. 용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5): C.G. 용 기본저작집 제7권, 《상징과 리비도》,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6): C.G. 용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 Jung CG (1990): CW 6, *The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Thompson S (1964): *The Types of the Folktale*, 2nd rev. FFC No.284, Helsinki.
-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용연구원, 서울.

Shim-Sŏng Yŏn-Gu 2023, 38 : 1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Fairy-Tale  
“Borrowed Fortune From Heave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Kihong Baek, M.D.\*

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folklore “Borrowed Fortune from Heave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considering it a manifestation of the human psyche, and tri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happens in our mind. Through the exploration, the researcher was able to re-identify the ongoing psychological process operating in the depths of our mind, pertaining to the emergence of a new dimension of consciousness. Particularly the researcher was able to gain some insights into how the potential psychic elements for the new consciousness are prepared in the unconscious, how they get integrated into the conscious life, and what is essential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rocess.

The tale begins with a poor woodcutter who, in order to escape from poverty, starts gathering twice as much firewood. However, the newly acquired amount disappears overnight, so the woodcutter gets perplexed and curious about where it goes and who is taking it. He seeks to find out the truth, which leads him to an unexpected journey to Heaven. There he learns the truth concerning his very tiny amount of fortune, and discovers another big fortune for an unborn person. By pleading with the ruler of Heaven, the woodcutter borrows that grand fortune, on the condition that he must return it to the owner when the time comes. After that, the woodcutter’s life undergoes a series of changes, in which he finally becomes a wealthy farmer, but gradually is reminded more and more that the destined time is approaching. In the end, the fortune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original owner, resulting in a dramatic twist and the creation of a new life circumstances.



The overall plot can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the psychological process aiming at the evolution of consciousness through renewal. In this context, the woodcutter can be considered a psychic element that undergoes a continuous transformation in prepar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upcoming new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is figure can be interpreted as a gradual and increasingly detailed foreshadowing of what the forthcoming new consciousness would be like.

Interestingly, as the destined time approaches, the protagonist's anguish in conflict reaches its climax, despite his good performance in his role until then. This effectively portrays the difficulty of achieving a new dimension of consciousness, which requires moving past the last step. All the events in the story ultimately converge at this point. After all, the resolution occurs when the protagonist lets go of everything he has and follows the will of Heaven. This implies what is essential for the renewal of consciousness. Only by completely complying with the entire mind, the potential constituents of the new consciousness that should play important roles in a renewal and evolution of consciousness through experiencing, can participate in the ultimate outcome. As long as they remain trapped in any intermediate stage, the totality of the psyche would develop another detour aiming at the final destination, which means the beginning of another period of suffering carrying a purposeful meaning. The tale suggests that this truth will be applied everywhere that renewal of consciousness is directed, whether for an individual or a society.

**KEYWORDS** : Fairy-tale; Heaven; Borrowed fortune;  
Renewed consciousness; Analytical psychology.

---

\*Ulsan Christian Hospital, Ulsan, Korea